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539장 ----- 다 같 이

기 도 ----- 말 은 이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가정이 걸어갈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정의 주인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잠언 19장 17절 ----- 다 같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 씀 ----- 노골적으로 기대합니다! ----- 다 같 이

찬 송 ----- 549장 ----- 다 같 이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6년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단순한 진리를 노골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노골적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틈시다.

‘노골’이란 말은 ‘이슬 로’(露), ‘뼈 골’(骨).

이슬 위에 뼈가 드러난 모습, 즉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냄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노골적으로 복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복을 기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여는 길에 관하여, 복을 받는 비결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눅6:38)

“주라”의 법칙을 하나님께 보일 때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관계적이든, 명예적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노골적으로 줍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한 노골적인 축복이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해주지 말고 넘치게 해줍시다. 정말 잘해줍시다.

올 한 해 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라”의 법칙**입니다.

1. 먼저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십시오.
2. 사랑의 말을 주십시오.
3. 물질도 주십시오.
4. 무엇보다도 나의 예수님을 주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를 주면 아름다운 삶이 열립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10:15)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단12:3)

‘옳은 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한 복을 받는 길입니다.

2026년이 밝았습니다. 누군가에게 2026년은 생의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고의 복을 잡을 기회의 시간인,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고난을 대면하는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복된 길이 있습니다. **“주라!”**

우리 모두 노골적으로 “주라”의 길을 걸어가, 노골적으로 복을 받는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김영우 담임목사



노
골
적
으
로

기
대
합
시
다
!